

교육청 내부유보금 감액 도의회 '부글부글'

■ 제주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교육청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상당히 무시" "몇몇 의원과 소통했다" 부교육감 해명도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3년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출 예산 자원 확보를 위해 내부유보금 171억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 오순문 부교육감이 "몇몇 의원들과" 소통했다고 발언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예결위는 18일 제41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도교육청 추경안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오 부교육감은 추경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재정 상황

을 감안해 내부유보금 171억 원 등을 활용"했다며 "이는 이번 추경에 별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을 경우 불용돼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고익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앞서 추경안 편성 관련 교육감 기자회견이나 교육위 심사 전 인사말에 없었던 내부유보금이 예결위에서 언급된 것과 관련 "그동안은 왜 이런 설명이 없었던 것이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특히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 아닌 소통이 부재했던 것이

라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상당히 무시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때 오 부교육감은 "소통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몇몇 의원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종합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예산을 올리지 않는 쪽으로 내부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부교육감의 말을 듣고 "지금 질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떨린다"며 "교육위원회 의원들 중에 친교육청, 반교육청 의원이 있느냐.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할 때 일부 의원한테는 하고, 일부 의원한테는 안 하느냐"고 물었다.

오 부교육감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했지만 양 의원은 "동료 의원들 간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오 부교육감은 일부러 의원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상가집 등에서 만날 때 나온 말이라고 덧붙이자 양 의원은 "그게 답변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지역구 현안 중 하나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공사로 인한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질문했다.

오 부교육감은 최근 제주도에서 지금의 서귀포학생문화원보다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삼대봉공원 내 서귀포예술의전당 북서쪽 부지를 제안하는 공문이 접수됐고 조만간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이전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9일 금요일 음 3월 30일 (7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30%
60%	성산	30%
30%	고산	30%
30%	서귀포	30%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17°C, 낮 최고 기온은 21-23°C로 전망된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5:31	달뜨기	04:58
해질	19:30	달짐	19:15

물때	만조	간조
	10:07 23:02	04:49 16:42

식중독지수 위험 감기가능지수 관심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한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빗방울 속에 숨은 금계국 18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도로변에 활짝 피어난 금계국에 맺힌 빗방울에 노란꽃이 들어가 숨어있다. 강희만기자

교육청 데이터센터 정전... 이대로 괜찮아 어제 오전 4시간여 홈페이지·내부 결재망 먹통

제주시 용담1동 북제주교육청 자리에 들어선 제주도교육청 데이터센터(옛 전산센터)의 정전으로 4시간 넘게 교육청 전산망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교육청 산하 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던 만큼 이번 정전을 계기로 시설 이전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정전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 발생했다. 데이터센터 측은 "데이터센터로 전기가 들어오는 한전 전신주 부품 고장으로 정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품을 교체하려면 2-3시간 이상 걸린다는 말을 듣고 자가발전기 사용이나 UPS(무정전전원장치) 활용 시 전기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어서 만일에 대비해 전산 서비스를 중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정전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소속 기관 홈페이지, 내부 결재망은 오전 9시40분쯤부터 복구가 이뤄졌다. 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그보다 늦은 오후 1시쯤에 정상화됐다. 이로 인해 오전 9시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한 참가자를 접수하기로 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 초청 행사 온라인 신청 게시일을 19일 오전 9시로 늦추고 각 학교, 인터넷 맘카페 등에 변동 상황을 알리는 소동이 빚어졌다.

도교육청 데이터센터는 당초 본청 건물에 있다가 2008년 옛 북제

주교육청으로 이전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그곳에 등지를 틀었지만 보안과 화재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당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를 거론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이 계획 중인 가칭 '동인초' 부지 활용 용역과 연계해 데이터센터가 신축 이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데이터센터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이라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시스템실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있어 동인초 부지를 포함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비 그치는 주말 제주 최고기온 21~23°C

오늘 오전까지 강풍동반 비 높이의 높은 물결이 일었다. 기상청은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9일 오전까지 중산간을 중심으로 10~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또 제주 대부분의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풍랑 특보도 발효돼 1.5~4.0m 이상민기자

"여가부는 책무 다하고 성평등 실현 앞장서라" 성에게 더욱 편중되며 여성 및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는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이에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행동은 특히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장관은 필요 없다. 사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김현숙 장관은 사퇴하고 여가부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예가 PLUS 아파트 16세대

33.5평형 8층 전용면적 84.68㎡ / 서비스면적 26.55㎡

- 거실, 방 세 냉·난방 겸용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 LG 창호
- 한샘 싱크대 및 불박이장 설치
- 인덕션,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옵션
- 전세대 스포링 클러 시설, 외부 준불연 자재 시공

7월 입주예정 분양가 3억대

최적의 위치

서홍동 367 보건소 뒤 시청에서 5분거리

분양문의 (주)상진건설 010-4696-0122